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NYT: 수십억불 규모의 연말 쇼핑 시즌, 소비 지출 규모 아직 불확실
- Bloomberg: 10월에 비즈니스 장비 주문은 크게 회복
- WSJ: 실업 청구수 늘었으나 팬데믹 기간 중 가장 낮은 편
- J.P. Morgan: ESG in the USA: The Disunited States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모기지율 2주째 하락... 지난 2달간 최저

[부동산]

- CNBC: 뉴욕시 고급 아파트 첨단 주차장 가구당 30만불 호가

[글로벌 경제]

- WSJ: 글로벌 경제 우려보다 나아질 듯... 중국 효과 가능성
- Bloomberg: 한국은행, 신용 리스크 우려에 더 낮은 금리 인상 선택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JP모건 "연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100bp 추가 인상"
- 연합뉴스: 美 연준인사 "가계 저축액 많아서 기준금리 더 높아야"
- 한경: 골드만삭스 "내년 美경제 연착륙... 필수소비재·의료 비중확대"
- 연합뉴스: HP, 앞으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최대 6천명 감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배송업체 UPS, Fedex, 첫 '포스트 팬데믹' 연말시즌 준비중
- CNBC: '승승장구'하는 현대자동차, 인플레이 감축법로 발목 잡힐수도
- CNBC: 대량 해고 피한 구글, 그러나 직원들 해고 불안감 커져
- Bloomberg: 런던 고용주들, 사무실 복귀 유인책으로 식사 제공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NYT: Billions of Dollars at Stake in a Puzzling Holiday Shopping Season 수십억불 규모의 연말 쇼핑 시즌, 소비 지출 규모 아직 불확실

- 2년 동안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올해 쇼핑 시즌이 회복되는 듯하다. 분출되지 못한 외부 활동과 소비 활동이 정상화 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소매업체들은 올 쇼핑 시즌에 매출이 크게 이뤄질지, 소비자들이 비싼 브랜드도 선호하는지 파악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 이와 관련, 올해 8월에 코스트코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매장에 설치했는가 하면, 아마존은 10월에 두 번째 Prime Day를 실시했다. 타겟도 10월에 할인 프로그램을 자주 실시했다.
- 쇼핑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지금 구매할지, 시간이 지나서 구매할지, 많은 사람을 위한 선물, 아니면 극히 일부 지인만을 위한 선물을 구매

할지, 온라인 구매, 아니면 직접 매장을 방문할지 고민거리가 많다.

- 이에 따라 소매업체들은 올해 쇼핑 시즌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아직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한편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추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과 12월 홀리데이 쇼핑은 작년보다 6%나 7%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상승 비율보다는 낮다는 것.
- 올해는 팬데믹 제한 조치가 회복되어 TSA에 따르면 출입국 여행객 검수 숫자가 작년 대비 33% 증가했고, Eventbrite에 따르면 콘서트 부킹 숫자는 51% 증가했다.

NYT 기사

Bloomberg: US Business Equipment Orders Rebounded Sharply in October

10월에 비즈니스 장비 주문은 크게 회복

- 10월 비즈니스 장비용 생산 주문이 회복되어 이자율 상승과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 계획이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항공기와 군사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가늠하는 수치인 핵심 자본재 가치가 9월에 0.8% 하락하더니 10월 들어서는 0.7% 올랐다고 오늘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 핵심 자본재 출하량도 올해 초 비교해 1.3% 가장 크게 증가했다. 4분기 GDP 전망에 청신호다.

Bloomberg 기사

WSJ: Jobless Claims Rise But Remain Near Prepandemic Lows

실업 청구수 늘었으나 팬데믹 기간 중 가장 낮은 편

- 한마디로 기술 분야 회사들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구인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해고 수준을 어림잡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17만건 늘어난 24만건을 기록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평균인 21만8천4백건과 거의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4주 평균치도 22만6천건 수준이다.
- 한편 전체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4만8천건이 늘어난 현재 1백60만건이다.

WSJ 기사

J.P. Morgan: ESG in the USA: The Disunited States 미국의 ESG전망... 주별로 의견 상충

[ESP의 도전]

- 중간선거가 공화당 물결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연방이 아닌, 주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ESG는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다.
- 4개 주 선거에(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Michigan)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런데 총 20개주의 의원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반 ESG 법안을 올렸다. 이들 공화당 주에서 반 ESG 분위기가 일어났다.

[IRA 약화 전망]

-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혁신의 3대 산업 정책은 이른바 IRA와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the CHIPS & Science Act 정책이다. 기후변화를 위한 5천83억달러의 규모다.
- 물론 IRA법이 철회되긴 힘들다. 대통령 비토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그 시행을 늦출 수 있고, 그 여파도 약화시킬 수 있다.
-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주도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새해에 IRA를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EPA, IRS, 재무부가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ESG 투자 추적하는 AUM의 지속적인 성장]

- 그린워싱(회사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 조치와 소송을 늘고 있다. 하지만 ESG와 SRI 펀드 상의 AUM은 증가하고 있다.

JP 모건 원문

[미국 금융]

Bloomberg: US Mortgage Rates Plunge for a Second Week, Hit Two-Month Low

미 모기지율 2주째 하락... 지난 2달간 최저

- 미 모기지율이 2주째 다시 크게 하락했다. 두달 째 최저다. 위축된 주택 시장이 약간 버티게 해주고 있다.
- 오늘 수요일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이달 18일 끝난 주의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률이 23 베이시스 포인트 오를 6.67%다.
- 지난 2주간을 감안했을 때 거의 0.5% 내린 셈이어서 지난 200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 이런 이자율 되돌림 현상은 경기 침체 우려 상승, 인플레이 둔화 조짐, 많은 연준 관리들이 긴축 금융 속도 둔화 필요성을 일부 제기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
- 이 같은 차용 비용 둔화로 인해 주택 구매 신청 지수가 2.8% 올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약세로 떨어진 후에 연속해서 세번째로

상승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CNBC: The future of parking is in New York — and it costs at least \$300,000 per space

뉴욕시 고급 아파트 첨단 주차장 가구당 30만불 호가

- 뉴욕시 고급 아파트는 베드룸에 따라 구매 가격이 엄청나지만 최소 수백만 달러가 소요된다.
- 그런데 이에 걸맞게 IT 등이 설치된 이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구매하려면 1대 파킹하는 공간이 30만달러를 호가하는 곳도 있다는 것. 고급 아파트의 경우는 60만불 가까이 간다.
- 예컨대 뉴욕시 Gramercy Park 가까운 위치의 주소 121 East 22nd Street 아파트는 1백40채의 고급 콘도인데 이 같은 자동 주차장이 24개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 Economy Slows, but Seems to Be Faring Better Than Feared

글로벌 경제 우려보다 나아질 듯... 중국 효과 가능성

- S&P Global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이는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11월 생산량이 감소,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침체로 예상된다는 것.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 첫 두 분기 중에도 연준 고금리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그러나 지역에 따라 내년에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생산이 내년에 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생산량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유럽의 GDP가 5%가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1.3%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outh Korea Seen Opting for Smaller Interest-Rate Hike on Credit Risks

한국은행, 신용 리스크 우려에 더 낮은 금리 인상 선택

- 한국은행이 평상시 긴축 금리 정책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신용 리스크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플레이를 잡을 의도이기 때문이다.
- 이코노미스트 17명중에 15명은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 금리를 0.25 퍼센트 포인트 올린 3.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2명은 지난달 수준과 똑같이 0.5% 인상을 점치고 있다.
-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연준의 급속한 금리 인상과 원화에 대한 압박에 대한 대응차원 이었다. 평소보다 빠른 금리 인상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개발 업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미 신용시장이 휘청거렸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JP모건 "연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100bp 추가 인상"
- **[연합]** 美 연준인사 "가계 저축액 많아서 기준금리 더 높아야"
- **[한경]** 골드만삭스 "내년 美경제 연착륙...필수소비재·의료 비중확대"
- **[연합]** HP, 앞으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최대 6천명 감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BC: How UPS, FedEx are preparing for the first 'post-pandemic' holiday season****배송업체 UPS, Fedex, 첫 '포스트 팬데믹' 연말시즌 준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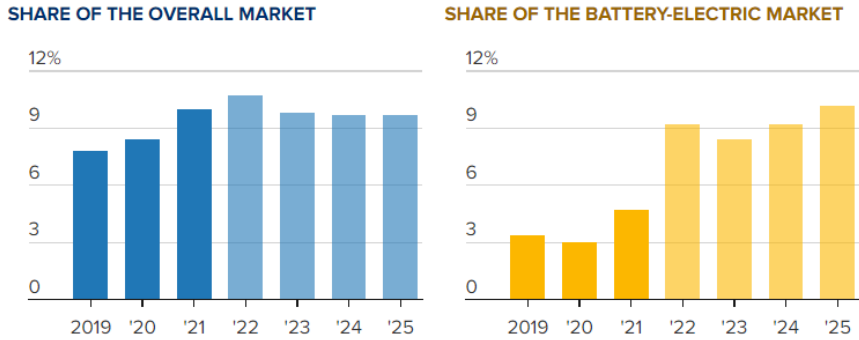
- UPS와 FedEx가 휴일 쇼핑의 급증에 대비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와 전자상거래의 둔화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UPS는 올 12월 말에 물량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절 근로자 1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시작되는 휴일 쇼핑 주말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 8백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일부 소매업자들은 전자제품 부문의 베스트바이부터 운동화와 월마트의 디스 스포츠용품에 이르기까지 강한 수요를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소매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타깃과 노드스트롬을 포함한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CNBC 기사

CNBC: Hyundai is on a hot streak in the U.S., but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could spoil it**'승승장구'하는 현대자동차, 인플레이 감축법로 발목 잡힐수도**

-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내 신차 판매의 거의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dai Group's share of the U.S. car market



Note: Lighter-colored bars are analyst projections.
 Chart: Gabriel Cortes / CNBC
 Source: LMC Automotive



- 그런데 매출 기준 세계 4위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부문(EV)에서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대차 구매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으로 전기차 구매와 관련된 연방 세금 공제를 잃은 것.
- 현대의 앨라배마와 조지아의 공장에서 기존 내연 모델을 생산하지만, 모든 전기차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장재훈 CEO는"규제를 변경하거나 현대차도 면제 혜택을 받도록 미국 및 한국의 관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 주 미 무역대표부 대표 Katherine Tai와 한국의 안덕근 통상본부장 간의 회담을 포함하여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CNBC 기사

CNBC: Google has avoided mass layoffs so far, but employees worry their time may be coming

대량 해고 피한 구글, 그러나 직원들 해고 불안감 커져

- 이는 최근 업무 평가의 변화와 각종 인력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 구글의 사업은 다른 많은 기업들처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경기 침체, 치솟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등 때문에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다. 구글은 대유행 기간 중 한 기간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수익 성장률이 가장 낮은 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 이미 차세대 노트북을 취소하고 사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에어리어 120'에 대한 자금을 대폭 삭감했으며 디지털 게임 서비스 스타디아 (Stadia)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 기사

Bloomberg: Cost-Conscious Workers Coaxed Back to Offices With Cheap Food

런던 고용주들, 사무실 복귀 유인책으로 식사 제공한다

-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해, 가뜩이나 물가에 불안한 종업원들의 사무실 복귀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 회사들에게 종업원 식사들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인 Compass Group는 이같이 전했다.
-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로 인해 직장인들에게 저렴한 식사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용은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고 대출 비용은 적어도 2028년 1분기까지 5% 가까이 유지될 예정이다.
- 경기가 둔화되면서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도 복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뉴욕주, 미국 내 가상화폐 채굴 첫 제한..."환경보호 우선"

화석연료 발전으로 채굴 금지...친환경 에너지로는 허용

뉴욕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환경 보호를 이유로 가상 화폐 채굴을 제한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2년간 가상화폐 채굴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바로 시행되는 이 법은 화석연료 발전을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다. 수력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는 채굴이 가능하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은 컴퓨터로 수학 방정식을 풀어 가상화폐를 버는데,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한다.

뉴욕주 버펄로 출신인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며 "거의 100년 만에 뉴욕주 북부에서 온 주지사로서 비교적 발전이 덜 된 커뮤니티에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